

유일신 부정... 생의 본질 탐구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⑧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①- 산키아학과

인도 육파철학중 하나 '數의 철학' 우주는 물질과 영혼 '이분법 사고'

우리가 양전에서 살펴본 바대로, 불타의 탄생지가 카필라성(城)이라고 알려져 내려오는 사실속에는 산키아학파의 창시자 카필라(Kapila)의 사상이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카필라성(城 바스투)은 사실상 '산키아학파의 요람'을 의미하며, 여기서 불타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교의 기원 가르침을 살펴보기에 앞서 산키아학파의 교리를 일견(一見)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불교신앙이 꽃을 피운 후부터 지금까지 카필라성은 많은 불교인들이 순례하는 성지(聖地)가 되었다. 당(唐)의 현장법사도 7세기 초반 카필라성의 유적을 답사하고 귀국하여 중국에 외부세계의 현실을 부정하는 관념론(觀念論, idealism)을 도입하였다.

인도 육파철학(六派哲學)의 하나인 산키아(Sankhya, 혹은 상카로도 발음함)는 산스크리트어로 '수(數) 혹은 '숙(熟考)'을 의미하며, '수론(數論)'으로 번역된다. 가르브(Garbe, 프랑스 불교학자)에 의하면, 바라문 승려들이 카필라의 교리가 지나치게 세분(細分)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비꼬기 위하여 '수(數)의 철학'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것이 그만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산키아는 2원론이다. 우주에는 태초에서부터, 복합물질인 프라크리티(Prakriti)와 무수한 수의 개별적이고 비물질적인 영혼인 푸루샤(Purusha)가 있다고 믿는다. 프라크리티는 3가지 요소(guna)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첫번째 요소는 사트바(satva)로서 객체속에서는 가볍고 빛나는 것이 되고, 주체속에서는 안락과 행복이 된다. 두번째 요소는 라자(raja)로서 객체에서는 강하고 활동적인 것이 되고, 주체에서는 열정과 공격성이 된다. 세번째 요소는 타마(tama)인데 객체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것이 되고, 주체에서는 무관심과 꿈이 된다.

첫번째 요소는 신(神)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두번째 요소는 인간세계를 지배하며 세번째 요소는 동식물과 광물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사

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나 고통은 그 사물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꽃에 내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다. 다양한 색깔들의 원인은 이 요소들에 기인한다. 사트바가 강하면 노란색이나 흰색이 되고, 라자가 강하면 붉은색이나 푸른색이 되며, 타마가 강하면 회색이나 검은색이 된다.

푸루샤(개별적 영)들은 물질과 결합하여 생물(生物)이 된다. 각각의 사물은 물질적 육체와 아주 섬세한 재료로 구성된 심리적이고 영적인 육체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

푸루샤는 옮겨 다니기 위해 몸이 필요하며, 영혼은 있으나 몸이 불편한 지체부자유자에 비유된다. 프라크리티는 영혼이 없는 보고 느낄 수 없으며, 몸은 있으나 볼 수 없는 장남에 비유된다. 물질적 육체는 인간의 죽음과 함께 소멸하지만, 심리적 육체는 소멸하지 않고

것이다. 비물질적인 영혼은 사건의 행위자가 아니라 관객이며 목격자이다. 영적 육체가 이것을 깨달을 때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깨어진다. 영혼과 두 육체(물질적 육체와 심리적 육체)는 상호 분리된다. 심리적 육체는 첫번째 요소인 사트바의 도움과 수도(修道)를 통하여 이 확산에 이르른다. 몸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절대적인 무의식의 경지에 도달한다. 경전에서는 이 상태를 영상이 비치지 않는 빈 거울에 비유한다. 이 무의식은 단순한 비 의식의 상상이나 배제가 아니다. 영혼은 이전에 생활이나 꿈의 목격자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깊은 꿈의 목

문호(大文豪) 빅토르 위고는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자서전 제목을 (그의 생의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빅토르 위고)라고 불렀다. 인도의 여타 철학체계처럼, 산키아학파도 무신론(無神論)이다. 그러나 바라문 승려들은 이것을 가지고 산키아학파의 정통성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인도사람들 사이에서 정통성은 인격신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옛 기도(祈禱)와 의식(儀式)과 송가(讚歌)를 모은 베다(Veda) 경전을 숭배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산키아학파의 무신론은 그리 공격



부처님의 탄생지인 카필라성은 명칭상 '산키아학파의 요람'이란 뜻과 유적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사진은 카필라성의 유적지.

"유일신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세상에 가득찬 악의 현실속에 신이 악을 제거하길 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존재"

영혼과 함께 운회한다. 이 섬세한 심리적 육체는 산스크리트어로 링가(linga)라고 불리며, 마누스(Manu, 중심기관), 분별지(分別知), 개성(個性)의 원리(즉, '나는 말한다, 나는 강하다, 나는 만진다, 나는 죽는다' 등 '나'라고 생각케 하는 환상) 등 1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산키아학파의 학자들은 동시적(同時的)인 지각(知識)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지각은 무한소(無限小)의 지속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시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색깔과 소리의 지각은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이루어진다는

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우리 생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라는 논리를 환기시키기 위해 산키아학자들은 아름다운 비유를 든다. 무용이나 연극공연을 보러가면 우리들은 흔히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같은 착각을 한다. 우리들이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사람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그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컨디션을 함께 한다. 이 친밀한 동거(同居)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곧 그 사람이라고 믿는 환상을 불러 일으킨다. 프랑스의 대

적인 것이 아니다. 전지전능한 유일신(有一神)은 부정하지만, 민간신앙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은 인정하였다. 가르브(Garbe)는 산키아 경전의 한 귀절을 인용한다.

"신(神)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것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신은 자비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해(苦海)이기 때문이다. 고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락탄치오(Lactancio)도 에피쿠로스(Epicuro)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만일 신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능(無能)한 존재이다. 만일 할 수 있는데도 원치 않는다면, 그는 사악한 존재다. 만일 원치도 않고 행할 수도 없다면, 그는 사악하고도 무능한 존재다. 만일 원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다면, 이 세상에 가득찬 악의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번역 : 김흥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영철 (도시출판사 대표)

어느덧 60이라는 나이가 나를 에워 싸고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도 이 나이 속에서 내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게 된다. 20대 후반에 출판사업에 몸을 던져 30년이 넘도록 책과 함께 살아 왔다. 책을 만든다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님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어쩌면 책을 만들어 살아온 나라는 한 인간의 삶이 조촐한 책으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지 모르겠다. 내 삶은 책을 벗어난 어떤 곳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간 나는 2천권이 넘는 책을 만들어 왔고 욕심질 모르지만 또 그만큼을 더 만들고 싶다.

한 친구와의 인연으로 뛰어난 이 일을 해 오며 나는 한번도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전생의 지중 한 인연에 따른 내 삶이 아니겠는가.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책들을 주로 만들며 출판계에 이름을 세웠던 나로서는 내 일과

움을 준 것이다. 짧게 가면 어김없이 보게 되던 달마의 그 부리부리한 눈에서 나는 종교적 외경심을 느꼈었다. 어린이들이라면 무서워 할 그 그림의 강도 높은 인상이 내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던 것이다. 땀을 흘리며 요요하게 요구하는 듯하고 또는 '네가 높은'도 뉘냐고 할책 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달마의 눈동자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의 가난을 느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달마도 앞에서 그런 외경심을 갖게되는가를. 때문에 언젠가는 달마라는 인물에 대해 공부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마음 저 밑바닥에 묻어 두고 살았다.

그런 가운데 인연이 닿아 최교수의 책을 만나게 된것이 이것은 분명 나에게 행운

"달마도 책 퍼내며 나 찾는 공부도"

'책과 30년 씨름' 수행... "더 좋은 책 만들자" 발원

불교와의 인연이 직접적으로 닿을 기회가 적었다. 그런데 5년전에 한권의 만화책을 내며 불교책 만드는 보람을 맛보게 됐다. <만화 반야심경>이란 책이었는데 일본 원본을 각색해서 내게 됐던 것이다. 물론 영업상의 타산은 맞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 책을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불교와의

의 인연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고가 오고 교정쇄가 돌고 제본에 들어가는 과정속에서 나는 달마를 만날 수 있었다. 달마의 눈동자 앞에서 작아만지던 나를 볼 수도 있었다. 달마도를 이해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내 자화상을 숭배해 그려 보았던 것이다. 달마는 결코 나를 꾸짖지 않았다. 나



새로운 인연을 갖게 되었으니 내게는 소중한 책이 아닐 수 없다.

그뒤 94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유상종사의 (인간 생활과 불교의 진리)를 펴내고는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됐다. 생활 속의 지혜들을 꼼꼼히 일러 준 그 책은 내가 탐독한 첫번째 불서였다. 교육용 책을 만들때야 기획단계에서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 뿐만 알게되지만 불서는 만들면서 또 내가 만든 책에 대한 감동을 불서를 통해 받게 된 것이다. 작년 연말 간행한 원광대 최순택교수의 <달마도의 세계>는 그런 감동을 더욱 크게 체험 시켰다. 조만간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일본 시장에 내놓게 될 이 책은 사업적 의미를 떠나 내 신행에 큰 도

를 향해 어떠한 힘책도 하지 않는 달마 앞에서 오히려 나 자신이 나를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동안 알 수 있었다. 그간 아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나도 관공은 불교신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오류였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달마를 통해 나를 본듯하지만 나를 통해 나를 볼 수는 없는 것인가를 말이다. 달마도를 이해한다고 나의 자화상을 이해 했다는 뜻은 아니란 사실 앞에서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고민이 있어 나는 앞으로 더 진솔하고 진지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불서 만드는 인연도 더 깊게 맺어 갈 수 있을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지난 세월 책과의 씨름보다 치열한 수행은 없었다는 자부심이 있는한 만들어 온 것보다 더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그냥 부러보는 허욕이 아닐 수 없다.

선우도량 제10회 수련결사
「미래사회와 승가상」
● 선우도량 수련결사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의 혜택을 이어받아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장림된 좋은 빛들의 모임,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승통진학'을 지향하는 선우도량의 제10회 수련결사가 '미래사회와 승가상'을 주제로 결사사에서 열립니다. 이번엔 열린 수련결사는 무성한 논리로만 커져있는 미래사회에서 지향되어야 할 승가상은 무엇이고, 佛典과 역사속에서 변천되어 온 승가상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법·수행·연구의 장에서 마쓰시게지인 수회동참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미래사회와 승가상
구성: 기초강연(홍선스님)
발제1-불전에 나타난 승가상(혜담스님)
발제2-불교사에 나타난 승가상(법성스님)
발제3-미래의 승가상에 대한 모색(종원스님)

· 때: 불기 2540(1996)년 4월 3~5일(음력 2월 16~18일)
· 접수시간: 4월 3일 오후 2시
· 곳: 선우도량 지리산 실상사
· 대상: 비구스님
· 참가비: 3만원
· 준비물: 대가사
· 문의처: 실상사(0671134-3772, 34-3757)
서울사부스(02742-6316), (팩스)742-6917

선우도량 공동대표
혜담 도법 현봉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월주님의 역적!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태종무렵 編譯/크라운관 양정/ 86쪽/값 1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
전화: 927-9372, 팩스: 723-0646

제6기 불교 기초교리강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절에 수십년을 다녔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많으시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뚜렷한 불교관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러되던 불보살님의 모습이 교리와 경전을 배우면서 참된 진리를 실천,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인 신 부처님의 모습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기초교리부터 경전까지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배워 상구보리 화하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 실천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초보자 및 무종교인·불교가 어렵다는 분을 환영합니다.

· 개강일시: 1996년 3월 19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강의 · 일반(주부) 오후 2시부터(선착순 50명)
· 오후반: 저녁 7시부터(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3개월 과정
· 교육내용: 불교기초교리·예절·의식·사원구조·중요경전 등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2-16호 한정 B/D 5층

한국불교 대학교 **백련사 포교원** 원장 박지상 합장
TEL: (02) 547-8268, 8269

제14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 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재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불기 2540년 3월 28일 ~ 4월 1일(음력 2월 10일 ~ 14일) 4박 5일
◆ 법문큰스님: 지관스님, 인환스님, 정관스님, 금담스님, 법회스님, 세민스님, 혜인스님, 혜충스님
◆ 동참금: 3만원(위해 한 분 모시는데 5천원)
◆ 지침물: 백미, 꽃, 과일 약간씩(주부실 분은 담요 1장씩)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주지 혜 총 합장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전화(051) 809-0926